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연령·지역 차이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고 애 란 · 진 병 호 · 심 정 은*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C & T Union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ge and Residence-

Aeran Koh · Byungho Jin · Jeongeun Sh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C & T Union

(1999. 8.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r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cloth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age and residence and to identify the relative effects of Korean female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clothing behaviors.

The instruments measuring 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adolescent egocentrism, social and general self—efficacy,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boredom susceptibility, optimal stimulation level, body attitudes—were adapted from previous studies. Clothing behavior measurement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ilot study results or adapted from previous studies. The data, collected from 2284 nationwide sample of Korean female adolescents(early, middle, late) was analyzed by frequency, two—way ANOVA, and LISRE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lothing behavior were factor analyzed and 6 factors were identified: dressing for others, conformity to peers, clothing interest, self—expression, psychological dependence and clothing exhibition. Effects of age were dominant in 6 out of 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ive clothing behavior factors except conformity to peers. Dominant main effect of residence was found only in boredom susceptibility. From the results of LISREL, adolescent egocentrism,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ensation seeking tendency were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Key words: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ffects of age and residence;
청소년기 여학생, 의복행동, 심리적 특성, 연령과 지역의 영향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개인의 의복행동은 단순히 신체보호를 위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자신의 욕구나 관심, 습관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또한, 집합적 의미에서 의복행동은 그 집단의 문화를 알리는 상징적 단서가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는 높은 의복관심과 다양한 의복하위문화가 존재하는 독특한 연령층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자아개념이 정립되지 않음으로서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정은 또래집단 소속에 대한 열망과 이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연예인에 대한 동일시, 일탈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며 신체적 매력은 이러한 행동의 영향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김양진과 강혜원(1992)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또한, 의복으로서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한 높은 관심은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감각추구성향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새롭고 복잡한 감각과 경험을 원하는 개인의 특질로서 청소년기의 독특한 유행추종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동년배 집단의 행동이나 언어 혹은 의복의 스타일의 모방정도를 결정하고 도덕적,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의복이 청소년기의 심리적·발달적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적 부분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청소년기의 의복행동과 여러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한정된 지역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각 도의 도시로부터 표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선행연구결

과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여러 심리적 특성이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여 이들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변인들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변인들을 규명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의복행동 연구들이 한정된 지역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 중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을 밝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연구에 포함된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청소년기에 이르러 인지적으로 성숙하면서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반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Elkind, 1967),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입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 자신만큼 타인들도 관심 있다고 상상하면서 가끔씩 자신에 대한 상상속의 청중(imaginary audience)을 창조해 낸다(김인경, 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변화 및 자아정체감의 추구와 관련되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자기집중 및 자의식 경향과 연관될 수 있다(장근영·윤진, 1992).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의 높은 의복관심과 또래집단의 의복동조, 또한 연예인의 외모모방과 유행의 몰입 등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 고에란과 김양진(1996)은 남·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중 외모/인기에 관련된 상상속의 청중 경향이 높을수록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의복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2. 자의식

자아의 관심은 외부 환경이나 자아의 내면으로 향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청소년기에서의 자의식의 정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자의식이 증가하며, 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자신의 내적인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외적으로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자의식 경향이 높다(고애란과 김양진, 1996). Miller 등(1982)은 공격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유행의사 선도력, 의복관심, 의복동조성, 유행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사적 자의식은 심리적 의존성에, 공격자의식은 과시/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과 심정은(1997)의 연구에서도 공격자의식은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심리적 의존의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 태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은 자아개념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가 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의 건강여부, 결합의 유무와 신체적 우열이 지적, 정서적,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된다(윤진, 1993). 특히 여학생들은 갑작스런 신체성장에서 나타나는 체중증가를 겪으면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Higgins 등, 1994). 고애란과 심정은(1997)의 연구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체중조절행동을 많이 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심리적 의존의존성, 유니섹스 의복 선택행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평가

한 효능감 기대에 따라 동년배 집단의 행동이나 언어 혹은 의복의 스타일의 모방정도를 결정하고 도덕성, 가치관, 사회적 행동 및 성행동을 결정한다(장휘숙, 1993). 고애란과 이수경(1998)에 의하면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행선도력, 심리적 의존성, 주의집중성이 낮으며, 최신유행을 선택하는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애란 등(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여고생의 교복착용을 통한 소속감 평가와 의복태도 중 유행관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적 승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감각추구성향

감각추구란 다양하고 새롭고 복잡한 감각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경험을 얻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최적각성수준이 높은 사람이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각성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극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가정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감각추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 보다 독창성이 더 높으며(Lamb, 1966), 자율성, 변화, 자기과시 욕구와 정적상관이 있고, 복종, 양육, 질서정연함, 협력 욕구와는 부적 상관이 있다(Zuckerman과 Link, 1968). Workman과 Johnson (1993)은 유행선도력과 다양성 추구성향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유행혁신자가 감각추구성향중 경험추구성향을 더 높게 나타내었으며, Kwon과 Workman(1996)은 변화에 대한 최적자극수준이 높은 사람이 유행선도력이 높다고 하였다. 고애란과 이수경(1998)의 연구에서는 감각추구성향의 권태민 감성이 의복태도의 모든 요인과 유행선택행동 및 외모관련 비행에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각도의 대표 도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문대학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8년 10월에 진행되었으며 각 도시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임의로 1개교씩 선정하여 수업시간을 통해 연령과 지역별로 약 140부씩 총 25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284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자아중심성: 김인경(1994)에서 사용된 자아중심성의 상상속의 청중척도 중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외모/인기요인에 관련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alpha=.79$ 이었다.

자의식: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한 공격 및 사적 자의식에 관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의식의

요인분석 결과 52.83%의 설명력을 갖는 두 요인이 도출되었다. 공격 자의식은 “나는 내가 비취지는 모습에 대하여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나는 항상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고심한다” 등의 7문항으로, 사적 자의식은 “나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나는 대체로 나의 내적인 감정에 있어서 주의 깊은 편이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문항은 제외되었다. 신뢰도는 $\alpha=.80, .59$ 이었다.

신체태도: Ben-Tovim과 Walker(1991)가 개발한 측정도구 중 13문항을 선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총 설명력 58.85%의 두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체형의식요인으로 “나는 더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내 체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데 정신집중이 안 된다” 등 4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신뢰도는 $\alpha=.69$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신체적 매력성요인으로서 “나는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때때로 내가 신체적 매력이 있다고 느낀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alpha=.74$ 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23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alpha=.81$, 사회적 자기효능감 $\alpha=.61$ 로 나타났다.

권태민감성: Zuckerman(1971)의 감각추구척도 중 선행연구(고애란과 이수경, 1998)에서 의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태민감성 1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65$ 이었다.

최적자극수준: Mehrabian과 Russell(1974)의 최적자극수준 측정척도를 10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78$ 이었다.

의복행동: 의복행동 측정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사전연구에서 여자 중·고·대학생 각 30명씩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내용분석하여 개발된 문항과 선행연구들로부터 선택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과정에서 청소년들에 의해 빈번히 언급된 의복과 외모에 대한 의견은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 의복을 통한 또래집단내의 소속감, 의복상징성에 대한 민감함,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의

<표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284

		인원수(명)	백분율(%)
연령	중학생	750	32.8
	고등학생	804	35.2
	대학생	730	32.0
지역	서울	359	15.7
	인천	376	16.5
	대전	365	16.0
	광주	425	18.6
	대구	391	17.1
	원주	368	16.1
경제상태	상층	166	7.2
	중상층	613	26.8
	중중층	1057	46.3
	중하층	275	12.0
	하층	118	5.1
	무응답	55	2.4
가정의 총 월수입	100만원 미만	209	9.2
	100~150만원 미만	501	21.9
	150~200만원 미만	534	23.4
	200~250만원 미만	387	16.9
	250~300만원 미만	232	10.2
	300만원 이상	273	11.5
	무응답	158	6.9

복을 이용한 자기과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피험자들에 의해서 언급된 내용 중 의복행동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해 추출한 내용으로는 “나만의 감각을 연출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즐겁다.” “날씬하고 예쁘게 보이도록 옷을 입으려고 애쓴다.” “연예인의 옷차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즐겁다.” “옷으로 기분전환을 한다.” “유명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으쓱해진다.”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 “내 친구들과 간에는 옷 입는 기준이 있다.” “의복은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입은 옷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달라진다.” 등을 들 수 있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는 Spss-pc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빈도분포분석과 요인분석, 연령과 지역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한 분산분석과 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Lisrel 8.0을 사용하여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요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추출

의복행동변인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이 총 6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여러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거나 신뢰도를 낮추는 8문항은 제외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0.33%이었다.

요인 1은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으로 명명하였으며, 의복이 지니는 상징성을 중요시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타인들이 인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착용하는 행동에 관한 9문항이 함께 묶였다. 설명력은 11.89%이었다. 요인 2는 또래유행추종요인으로, 또래의 의복기준에 의한 의복선택, 의복과 유행에 대한 관심, 유행경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7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9.49%이었다. 요인 3은 설명력 8.41%의 개성표현 요인으로 의복을 통해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며,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태도에

관한 7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4는 의복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3문항이 포함되어 의복관심이라 명명하였으며, 총 변량에 대한 비율은 7.35%이었다. 요인 5는 의복을 통한 기분전환, 의복이 주는 좋은 기분 등의 의복이 주는 느낌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4문항이 포함되어 심리적 의존성이라 명명하였다. 설명력은 7.32%이었다. 요인 6은 타인의 눈을 끌지 않는 평범한 의복선택에 대한 문항과 대담한 디자인의 의복선택에 대한 문항들이 같이 묶여 의복과시성이라 명명하였다.

2.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요인의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

본 연구의 연구변인으로 포함시킨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에 대한 피험자의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3>, <표 4>와 같이 대부분의 변인에서 연령에 의한 주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나 청소년기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연령이 중요성을 가지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령·지역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자아중심성: 심리적 특성 중 외모/인기요인의 상상 속의 청중척도로 측정된 자아중심성에 대해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상상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보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학생때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모습과 비현실적인 모습을 구분하여 이를 이루고자 실제로 노력하면서 자신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는데 대전이 가장 높고 인천과 광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는데 연령효과에서는 고등학생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 대학생집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

〈표 2〉 의복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N=2284

의복태도 문항 및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 1: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어진다.	.66	.00	.00	.11	.18	.00
나는 옷을 잘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65	.00	.18	.16	.00	.00
옷을 잘 입어야 남 앞에서 자신 만만하고 당당해진다.	.64	.10	.18	.29	.00	.00
의복은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60	.39	.00	.00	.00	.00
의복은 나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56	.16	.10	.00	.10	.19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달라진다.	.55	.18	.14	.10	.30	.00
유명상표의 옷은 나에게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한다.	.52	.36	-.12	.00	.00	.13
외모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한다.	.52	.11	.00	.00	.00	.12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49	.00	.42	.29	.00	.00
요인 2: 또래유행추종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비슷한 스타일이나 브랜드의 옷을 선택한다.	.00	.64	.00	.15	.00	-.12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어느 상표인지 짐작 간다.	.21	.63	.13	.00	.13	.12
나는 새로이 유행하는 옷이나 악세사리를 친구들보다 빨리 산다.	.00	.61	.12	.18	.26	.31
내 친구들은 자주 내게 유행에 관한 나의 의견을 묻는다.	.00	.58	.17	.24	.20	.22
내 친구들과 간에는 옷 입는 기준이 있다.	.20	.58	.00	.00	.00	.00
나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패션에 관한 광고나 진열장 등을 자주 본다.	.19	.52	.00	.41	.22	.16
나는 친구들이 새로운 유행을 구입할 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24	.51	.15	.23	.00	.12
요인 3: 개성표현						
나만의 감각을 연출할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33	.00	.65	.29	.00	.00
사람들이 덜 입어 희소성이 있는 옷으로 개성을 강조하고 싶다.	.00	.10	.62	.00	.00	.33
기존의 브랜드와 다른 새로운 느낌이 나는 브랜드의 옷이 좋다.	.00	.13	.58	.13	.00	.29
옷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매력 있고 흥미진진한 일이다.	.39	.00	.54	.37	.00	.00
옷을 고를때 나의 신체적 장점이 돋보일수 있는 스타일을 선택한다.	.22	.14	.52	.15	.15	.00
자기가 입어서 만족스러운 옷이면 남이 어떻게 보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12	.00	.48	-.18	.11	.00
옷을 고를 때 나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을 선택한다.	.33	.18	.43	.00	.17	-.21
요인 4: 의복관심						
옷을 살 계획이 없어도 어떤 옷들이 있는지 점포를 둘러보는 것을 좋아한다.	.13	.19	.18	.76	.13	.00
옷을 사기 위해 쇼핑하는 행위 자체가 내게 즐거움을 준다.	.23	.22	.11	.75	.17	.00
T.V.나 영화를 볼 때 가수나 배우의 옷차림에 관심이 많이 간다.	.27	.27	.00	.59	.12	.12
요인 5: 심리적 의복의존성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조차도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한다.	.16	.00	.00	.13	.79	.00
나는 옷이 구질구질하면 기분도 단정치 않아지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22	.11	.00	.00	.75	.00
나는 일상생활이 단조롭고 지루할 때 옷을 바꾸어 입어 기분전환을 한다.	.00	.18	.27	.17	.59	.11
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입을 옷을 결정한다.	.11	.21	.26	.00	.57	.12
요인 6: 의복과시성						
나는 어떤 종류의 모임에서나 주의의 대상이 될만한 옷을 입고 싶다.	.00	.00	.12	.00	.00	.71
나는 남의 눈을 끌지 않은 평범한 옷을 선택한다.	.16	.00	.00	.14	.11	-.69
나는 대담한 디자인의 의복을 좋아하는 편이다.	.12	.17	.21	.00	.25	.60
고유근(Eigen value)	3.87	3.17	2.67	2.52	2.45	1.93
신뢰도(Reliability)	.82	.79	.68	.76	.74	.61
누적변량(%)	11.89	21.38	29.79	37.14	44.46	50.33

〈표 3〉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령·지역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심리적 변인의 연령·지역별 평균값										
구분	변인	자아 중심성	자의식		신체태도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권태 민감성	최적 자극 수준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체형 의식	신체 매력성				
연령	중학생 (N=750)	-.105	.047	-.208	-.073	-.143	-.022	.086	.023	.028
	고등학생 (N=804)	.126	.029	.074	.071	.010	-.028	.016	.003	.076
	대학생 (N=730)	-.031	-.081	.128	-.004	.136	.056	-.106	-.023	-.113
지역	서울 (N=359)	.064	-.033	.096	.054	-.082	.055	-.003	.037	.066
	인천 (N=376)	-.083	-.058	-.043	.072	-.093	.025	-.072	-.047	.002
	대전 (N=365)	.111	.021	-.139	-.046	.001	.014	.024	.032	-.032
	광주 (N=391)	-.082	.013	-.031	-.077	.051	-.064	-.058	-.129	-.098
	대구 (N=425)	.032	.054	.063	-.029	.117	-.023	.081	.163	.051
	원주 (N=368)	-.028	-.003	.056	.040	-.009	.003	.031	-.043	.023

이원분산분석결과										
변량원	변인	자아 중심성	자의식		신체태도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자기 효능감	권태 민감성	최적 자극 수준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체형 의식	신체 매력성				
	연령의 주효과	10.96***	3.77*	25.34***	3.64***	15.64***	1.54	6.99***	.59	7.84***
	지역의 주효과	2.26*	.53	2.67*	1.65	2.81*	.62	1.34	4.05***	1.82
	연령×지역	3.54***	1.55	1.70	1.64	3.15**	.57	1.09	2.35**	2.49**

*p<.05 **p<.01 ***p<.001

내고(223), 대전에서는 중학생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145)를 나타낸 것에 의한 결과이다.

자의식: 공적 자의식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만이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자의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적 자의식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내적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주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는데 서울이 가장 높고 대전이 가장 낮았다.

신체태도: 체형의식 요인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자신의 체형을 가장 많이 의식하였다. 또한 신체매력성 요인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이라 지각하였으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수정하는 행동(화장, 차려입기 등)을 통하여 매력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므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 주효과 및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가 약하게 나타났는데, 대구의 대학

생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338), 서울의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559)를 나타낸 반면, 대전에서는 연령에 따른 점수 차이가 없었다.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만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더 사교적이며 사회적 모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민감성: 권태민감성에서는 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대구지역의 청소년이 권태로운 일상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도 약하게 나타났는데, 대구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349), 광주(-.228)와 대전(-.176)에서는 대학생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경향을 나타내었다.

최적자극수준: 최적자극수준에서는 연령의 주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지역의 약한 상호작용효과는 대전의 중학생

〈표 4〉 의복행동 각 하위요인에 대한 연령·지역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의복행동 각 하위요인의 연령·지역별 평균값								
구분		변인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또래 유행추종	개성표현	의복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연령	중학생(N=750)		-.128	-.027	-.123	.070	.005	.129
	고등학생(N=804)		.135	-.008	.051	-.115	-.158	-.070
	대학생(N=730)		-.017	.037	.071	.054	.169	-.056
지역	서울(N=359)		.055	-.027	.147	.064	-.045	-.126
	인천(N=376)		-.040	-.030	-.052	-.078	-.003	-.095
	대전(N=365)		-.125	.127	-.141	.075	.101	.109
	광주(N=391)		.109	-.015	-.089	-.062	-.022	-.067
	대구(N=425)		.003	-.054	.079	.115	.028	.126
	원주(N=368)		-.019	.006	.068	-.109	-.058	.055
이원분산분석결과								
변량원		변인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또래 유행추종	심리적 개성표현	의복관심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
		연령의 주효과	13.02***	.78	8.16***	8.36***	21.11***	9.94***
		지역의 주효과	2.22*	1.37	2.45*	3.38**	1.25	3.35**
		연령×지역	2.33**	4.60***	2.01*	1.33	1.92*	1.78

*p<.05 **p<.01 ***p<.001

(.155)과 대구의 대학생(.131)의 점수가 고등학생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에 의한 결과이다.

2) 의복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이원분산분석결과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요인: 연령의 주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주효과 및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도 약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생이 의복이 갖는 상징성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의복착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주가 가장 높고 대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는 연령효과에 의한 집단별 점수경향과는 달리 대전에서는 고등학생(-.242)이 중학생(-.052)보다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대구(.272)와 원주(.210)지역에서는 대학생집단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에 의한 결과이다.

또래유행추종요인: 연령과 지역의 주효과 없이 연령과 지역간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나타났는데, 서울(.129)과 대전(.394)에서는 고등학생이, 인천(.182)과 대구(.189)에서는 대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또래집단에서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친구

들간의 의복기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표현 요인: 연령의 주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주효과 및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도 약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자기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여 개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지역이 높고 대전지역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령과 지역의 상호작용효과는 대전의 대학생(-.242)이 가장 낮은 점수를, 서울(.196)과 광주(.306)의 고등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에 의한 결과이다.

의복관심 요인: 연령과 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나 대학생과 중학생이 의복에 관심이 높았으며, 대구의 청소년들이 의복과 쇼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의복 의존성요인: 연령의 주효과가 높게 나타나 대학생이 의복으로 기분 전환하려는 정도가 높으며 고등학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지역의 약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인천, 대구, 원주에서는 연령효과에서 나타난 대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순의 점수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

으나, 서울(.027)과 광주(.015)에서는 대학생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대전에서는 고등학생(.150)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의복 과시성요인: 연령과 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의복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와 대전에서 의복과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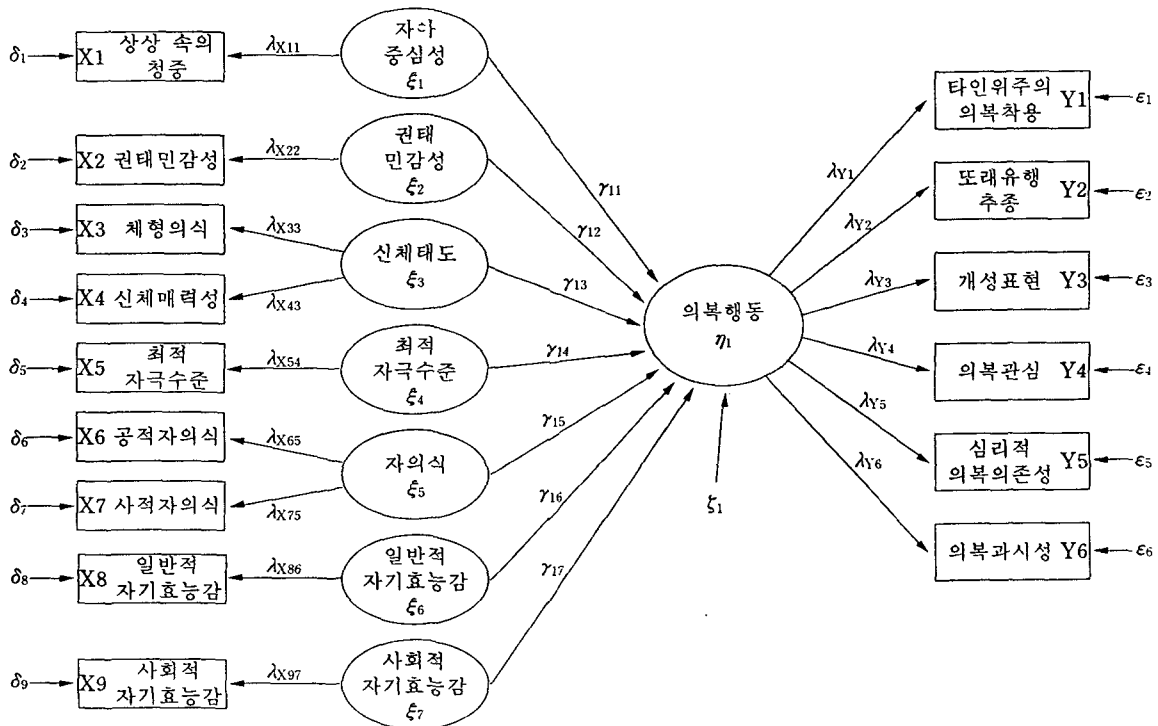
3.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 모형

본 절에서는 7개의 심리적 특성이 6개의 의복행동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여 각 심리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Lisrel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복행동 각 요인별로 심리적 특성변인의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타 변인들에 비해 의

복행동 요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체형 의식과 사적 자의식 변인을 제외하고 모형을 재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세 집단 모두 p값이 .00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본 연구의 세 집단이 모두 표본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자료의 크기나 정규분포의 가정에 민감하지 않은 GFI, AGFI, RMR과 같은 지표를 살펴 본 결과, 세 집단 모두 일반적인 적합한 모형의 기준인 GFI, AGFI .90이상, RMR .05이하에 부합하여, 본 연구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의복행동 변인에 대한 측정 타당성은, <표 5>와 같이 세 집단 모두 각 λ 값이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6개의 관찰변인이 의복행동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복행동에 대한 6개 요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중학생집단에서는 의복관심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위주의



[그림 1]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의 검증 모형

〈표 5〉 집단별 각 심리적 특성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델 검증 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여중생	여고생	여대생
		ML ^a (SE) ^b	ML(SE)	ML(SE)
의복행동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1.0 ^c	1.0	1.0
	또래유행추종	.92(.05)***	1.09(.06)***	.93(.05)***
	개성표현	.76(.05)***	.65(.05)***	.78(.05)***
	의복관심	1.15(.07)***	1.43(.08)***	1.11(.07)***
	심리적 의복의존성	.88(.06)***	.96(.06)***	1.08(.06)***
	의복과시성	.64(.05)***	.72(.06)***	1.70(.06)***
자아중심성 → 의복행동	.18(.03)***	.23(.03)***	.15(.02)***	
권태민감성 → 의복행동	.15(.05)***	.13(.04)***	.21(.04)***	
신체매력성 → 의복행동	.07(.02)***	.06(.02)***	.08(.02)***	
최적자극수준 → 의복행동	.18(.03)***	.12(.03)***	.16(.03)***	
공적 자의식 → 의복행동	.22(.03)***	.15(.03)***	.24(.03)***	
일반적 자기효능감 → 의복행동	-.11(.04)***	-.04(.04)	-.01(.04)	
사회적 자기효능감 → 의복행동	.09(.02)***	.11(.03)***	.10(.03)***	
Chi-square 44 degree of freedom		272.96(p=.00)	373.09(p=.00)	300.12(p=.00)
Goodness of Fit Index(GFI)		.94	.93	.94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88	.86	.87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02	.02	.02

a: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p<.001

b: Standard Error

c: 타인위주의 의복행동은 1로 고정시켰으므로, standard error나 t값이 주어지지 않음

의복착용>또래유행추종>심리적 의복의존성>개성표현>의복과시성의 순으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의복관심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두 번째로는 또래유행추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심리적 의복의존성>의복과시성>개성표현의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집단에서는 의복과시성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의복관심>심리적 의복의존성>타인위주의 의복착용>또래유행추종>개성표현의 순으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연령에 따라 중요시되는 의복행동 측면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징의 차이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7개의 심리적 특성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중심성, 최적자극수준>권태민감성>일반적 자기효능감>사회적 자기효능감>신체매력성의

순으로 의복행동에 영향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자아중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었고 공적 자의식>권태민감성>최적자극수준>사회적 자기효능감>신체매력성의 순으로, 대학생 집단에서는 공적 자의식>권태민감성>최적자극수준>자아중심성>사회적 자기효능감>신체매력성의 순으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전반적으로 의복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은 중학생, 대학생의 경우 공적 자의식,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중심성이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중학생의 경우는 자아중심성, 고등학생은 공적 자의식, 대학생은 권태민감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대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의복과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는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의복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중심성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며 고등학생 연령인 청소년 중기에서 최고조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

며 또한, 의복행동에 대한 각 요인의 설명력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집단에서는 또래유행추종과 타인위주 의복착용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학생연령에서는 인지발달로 인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의복과 외모를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권태민감성, 최적자극수준 등의 성향에 의한 영향이 자아중심성의 영향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의복행동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도 의복과시성, 심리적 의복의존성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중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초기에는 자아개념의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적 불안정이 크며 따라서 장휘숙(1993)의 언급대로 자신이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의복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의 하위 측면은 요인분석 결과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또래유행추종, 개성표현, 의복관심, 심리적 의복의존성, 의복과시성의 6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요인의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중심성, 체형의식, 신체매력성, 최적자극수준, 사회적 자의식,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 연령에 의한 주효과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권태민감성에서만 지역에 따른 주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점수경향은 자아중심성, 체형의식, 최적자극수준은 고등학생집단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자의식과 신체매력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의복행동요인에 있어서는 또래유행추종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점수경향은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은 고등학생집단에서, 개성표현과 의복과시성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집단에서, 의복관심은 중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 심리적 의복의존성은 대학생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변인의 연령차이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즉, 청소년기의 의복행동 및 심리적 특성은 거주지역보다는 연령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의복행동요인으로 추출된 또래유행추종은 지역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연령의 주효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여러 변인에서 지역의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집을 좀 더 세밀하게 실시하여 이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의표집에 의하였기 때문에 경제수준이나 가치관 등과 같은 가정환경변인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완도 요구된다.

세째, Lisrel 분석을 통해 의복행동 변인에 대한 6개 요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의복관심요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었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집단에서는 또래유행추종과 타인위주 의복착용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 반면 대학생집단에서는 의복과시성과 심리적 의복의존성이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어 의복행동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연령 차이가 있었다.

네째, 의복행동에 대한 심리적 특성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Lisrel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 중요도 순위가 다르기는 하나 자아중심성, 공격 자의식, 권태민감성 또는 최적자극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의 독특한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중심성, 공격자의식, 감각추구성향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이중 자아중심성과 감각추구성향은 특히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며 따라서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이 시기의 발달적 특징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였으나 그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신체발달상의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체형에 대한 의식이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으나 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전 조사의 심층면접에서 서구화된 체형에 대한 선호와 미디어 이미지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한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고애란 · 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667-681.
- _____. · 심정은(1997).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 행동의 영향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 15-29.
- _____. · 이수경(1998).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7), 931-941.
- _____. · 김양진 · 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연구. *생활과학논집*, 13, 31-41.
- 김양진 · 강혜원(1996). 의복 및 신체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김인경(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 진(1993). 청소년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서원.
- 장근영 · 윤 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1), 157-175.
-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장승
- Ben-Tovim, D. I. & Walker, M. K.(1991). The development of the Ben-Tovim Walker body attitude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775-784.
- Elkind, D.(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522-527.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 Kwon, Y., & Workman, J. E.(1996). Relationship of optimum stimulation level to fashion behavio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4), 249-256.
- Lamb, C. W.(1966). Forms of need for variety: Differential expression following arousal and boredom.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Merabian, A., & Russell, J.(1974).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Workman, J. E., & Johnson Kim K. P.(1993). Fashion opinion leadership, fashion innovativeness, and need for variety.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1(3), 60-64.
-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 Zuckerman, M., & Link, K.(1968). Construct validity for the Sensations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20-426.